

사순 제 3 주일

기도서 P. 257 A해

- 1독 (출애 17, 3-7절)
- 2독 (로마 5, 1-2, 5-8절)
- 복음 (요한 4, 5-42절)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 감 론 □



우물가의 한담

정 태 현 신부

복음에 나오는 인물들은 거개가 다 약점투성이의 허약한 인간들이지만, 그 소박하고 솔직함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심금을 울려줍니다.

63년 유대인의 최고회의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특히 사마리아 여인과의 교제를 공식적으로 금지한 사실로 보아, 예수 당시에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읍내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분부하신 후 우물가에 앉아서 한가로이 쉬고 계셨습니다. 때는 마침 낮 12시 경,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야하게 차린 여인 하나가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부끄러워서라기 보다 우물가에 모인 동네 여편네들의 구설수가 듣기 싫었던 까닭에서였겠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우물가에 웬 낯선, 더구나 옷차림이나 말씨로 보아 유대인임에 틀림없을 삼십대의 젊은 사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설상가상으로,

“아주머니, 물 한 그릇 떠 주시겠어요?”

뻔뻔스럽기도 여간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죠?”

모두가 더위 오수를 즐기는 이때, 낯선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예수님도 무뎠는지, 외간 남자에 대한 여인의 적살도 보통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여인과의 잡담에서 갑자기 말머리를 돌리시고,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오라고 영뚱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남편이요? 그런 사람은 제게 없습니다.”

능청을 떠는 여인에게 일침을 놓습니다.

“없다는 말이 옳겠지요, 벌써 다섯 사내를 갈아치웠고 지금 남자도 결혼한 남편이 아니니까.

“여인은 속으로 뜨끔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화제를 하느님께 대한 예배장소로 바꿉니다. 자신의 수치스런 신분을 더 이상 들추어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여인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척, 잡담을 진담으로 끌어가시다가 예수께서는 곧바로 당신의 신분을 밝히십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요.”

여자는 물동이조차 내 뺨개친 채 동네로 뛰어가, 그리스도가 우리 동네에 오셨다고 큰 소리로 호들갑스레 떠들어 댁니다. 믿지 않은 성격입니다.

신앙은 이런 소박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닐까요? (월명동 성당 보좌신부)



입맛 쓴 춘극

—도시락 혼분식 검사

학교도시락 혼분식제는 지난 69년 1월 음식점의 혼분식 제도와 함께 실시된 것으로 주곡 절약과 식생활개선 등을 위해 학생들 도시락에 보리 콩 등 잡곡을 반드시 30% 이상 섞도록 하고 담임교사가 검점표를 만들어 주 2회씩 혼분식 실패를 조사, 그 실효를 정기적으로 보고해 왔던 것. 이번 혼분식제 폐지결정은 지난해 쌀 4천만톤 생산으로 쌀막걸리가 나오고, 쌀을 수확하게 된 마당에 학생들에게까지 혼식을 계속 권장해 주곡을 절약해야 할 명분이 없다는 판단 아래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학교도시락 혼식폐지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하는 조치로 환영되었지만, 지난 9년 동안 이 제도가 낳은 부작용에 시달려온 이들 3자 모두에게 뒷맛 씁쓸함을 느끼게도 하는 것이다. 혼식을 권장할 필요도 없는 시골학교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됐지만, 도시학교 특히 서울 시내 각급 학교에서의 도시락 검사는 술한 부작용과 낭비와 행정의 시행착오를 연출한 춘극의 연속이었다.

검사를 하는 교사들 자신도 혀를 차면서 마지못해 해야 했던 경우가 태반이었다. 나중에는 책상에 앉아서 1주일분 또는 한달치 검사결과 보고를 허위작성하는 형식 행정에 흐르기도 했다.

더구나 이 학교 도시락 혼분식제가 실시된 연유조차 문교부 관계자 자신들이 잊어먹고 있었던 사실이 최근 밝혀져 우리를 더욱 아연케 하는 것이다.

즉 지난 연말 문교부는 농수산부에 쌀 매봉 등으로 학교 혼분식이 의미가 없어졌으니 풀어주는게 어떻겠느냐고 윤희(?)를 건의하자 답할 「농수산부는 지시한 일이 없고 8년전 음식점 혼분식 실시 때 문교부가 정부방침에 협조하는 뜻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한 것이니 해제여부는 귀부(貴部)가 알아서 하시라」는 내용이었다고.

(新東亞 3월호 P. 352에서)

숲 정 이 산책



떡의 돼지는 얼마나 자랐을까?



20 대 와 사 순 절

세 시 리 아

사순절은 우리 가톨릭 신자에게 특별한 극기와 희생을 필요로 하는 시기로 부활축일을 준비하는 사십일간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인류구원을 위해 온갖 시련과 수난을 당하셨던 사순절의 시기는 우리 교회의 전례상 재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된다. 재의 수요일에 우리는 신부님으로부터 머리에 재를 발겨된다.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말은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듯 싶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에 교회는 특별히 우리에게 단식과 금육을 지킬것을 요한다. 사순시기 동안의 매주 금요일에 금육을 지켜야 하고 마지막 주인 성주간 금요일엔 역시 단식과 금육을 지켜야 하는데 여기엔 깊은 의미가 담겨있다. 인간적인 욕심과 이기를 절제하고 희생함으로써 예수님의 수고수난에 참여할 수 있고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자세이겠기 때문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도 모른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험한 길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새롭고 강한 신앙의 인식이 재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순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은 무척 큰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때로 신앙에 나태를 부릴 수 있는 나약한 우리 인간에게 사순절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면 우리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사순절은 결코 헛되게 지낼 수 없는,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할 수 있는 신앙인인 우리에게 획기적인 시기라고 생각하며 뜻깊게 보내야함을 절감한다.

소 피 아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뜻깊은 사순절을 맞이하여 보다 굳은 신앙심으로 생활에 임해야 되겠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점점마다 걸어두었던 성지가지를 태워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며 예를 지내게 되며 신부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기도문을 외우시는 예를 지낸다.

사순절을 맞이하는 첫번 주 미사때에 부제님 강론 내용이 조금 떠오른다. 기억이 좋지 못해 잘 모르겠지만 구약성서의 어느 한 구절을 읽으시고 자기 동생의 이야기를 하셨다. “동생이 어렸을 때, 열집에서 장례식을 치르느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더라고 동생은 좋아서 “엄마는 언제 죽는가”를 물어 보았다 한다. 그 동생은 죽음이라는 것은 모르고 다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음식을 장만하는 것만을 보고 어린마음에 좋을 뿐이었다 한다.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릴 얘기지만 그것은 강론말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중의 그 나쁜 제자의 행동과 같다는 것이다.

실 비 아

주님은 우리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다. 사순절, 조금은 알고있다. 그러나 사순절에 대해 글을 쓸만한 것을 알지 못하는것 같아 부끄럽기 짝이 없다.

아 네 스

우선 사순절하면 나의 머리에는 “아! 부활절이 멀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207호의 주보에 어느분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신이 아니라면 부활할 수 없다는건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알 수가 있다.

또 주님께서 본시오 빌라도 치하에서와 같은 고난과 수난과 고통 박해가 없었다면 부활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주님이 하신 일은 크고 또 그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요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신 사제성장에 적극 후원하지 않으려 함은 주님의 자녀로서 너무나도 당치 않은 행위라 생각된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사제 양성에 우리가 후원해 주지 않으면 누가 이분들을 키워 주시겠는가

우리 신자들은 사순절을 맞이하여 사제후원에 적극성을 띠어야겠다.

그리고 사순절에 지켜야 할 재의 수요일과 금요일의 금육과 금식을 잘 지켜서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고 주님께 바쳐야겠다.

우리의 이웃에는 우리보다 못한 형제들도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는 발벗고 나서는 형제들을 매스름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다. 하물며 우리 신자들이 눈감을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젼 마

얼마전 일이었다. 집에서 아침을 마치고 출근을 하는데 성당에서 느닷없는 종소리가 울렸다. 새삼스럽게 발걸음을 멈추고 성당 앞을 지켜보았다. 아, 내가 왜 이럴까? 신자라는 소위 나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정리한 후 그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가슴아프게 재적을 가했기 때문이다. 평소에 이렇게 신앙에 무관심했던 것도 아닐진대 그만 하느님 앞에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던 것 같았다. 난 지금도 걱정이 되곤 한다. 앞으로의 내 생을 어떻게 살지하며 보람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순진하고 어설픈 자선에 더해서...

주일이 되었다. 바쁜 마음으로 성당에 도착했다. 하느님께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제1 사순절을 경건한 마음으로 맞이했다. 하느님께 앞으로는 자랑스런 딸이 되리라. 세상에는 신자라는 명목만 갖고 이처럼 비약한 교우가 허다할 것이다. 지난 40여일의 고통속에서 자랑스러움과 그 뜻깊은 인내로 빛을 밝히셨던 내 하느님께 이제는 꾸준한 신자가 되겠다는 약속과 죄지 저급음을 가슴에 안고 미사를 무사히 마쳤다.

젼 마

사순절이란 예수님의 부활축일을 준비하는 40일간의 기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수난을 겪으시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다. 우리의 가톨릭 신자들은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을 경건한 마음으로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설계·감리·허가수속□ 하느님의 성전과 교형자제들의 보금자리 건축에 희소식!!!

신원건축연구소

1 급 건축사

김 철 수 (금구<인>)

☆ 천 주 가톨릭 빈 타 220호실
전화3-7780, 3-〈야간〉1449

□ 성모병원 안내원 모집

자 격 : 국졸 이상, 병역필한 30세이상 남자

제출서류 : 이력서, 본당 신부 추천서

기 한 : 3월 1일까지

접 수 처 : 성모병원 사무국

면 접 일 : 3월 3일 오전 10시, 성모병원 사무국

□ 양 지 쪽 □

性相近也나 習相遠也니라

이 순 성 신부



아직 교도소에 관해 발설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입에서 맴도는 그 무엇때문에 망신을 무릅쓰고 이 글을 쓴다.

50대 남자와의 일문일답이다. 「몇년 사셨어요?」 「16년이요」 「몇년 남으셨지요?」 「4년입니다.」 「고생 많으셨겠네요.」 「필요, 죄다 제 몫인걸요.」 이번엔 30대 여인과의 문답이다. 「어찌된 일이지요?」 「제가 워낙 잘못했었어요.」 「몇년이나 남았어요?」 「6개월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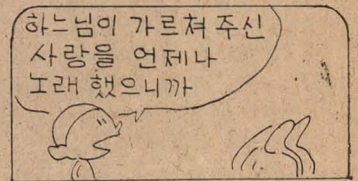
일주일에 한 차례씩 전주 교도소를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미사집전 혹은 예비자 교리를 위해서다. 그때마다 이를 석자 대신 변호를 왼쪽 가슴에 붙인 푸른 수의(囚衣)를 걸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 내가 만날 사람들은 물론 전체 수인들은 아니다. 이왕에 세례를 받았거나 늦게나마 가톨릭 사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뿐이다.

서두에서의 일문일답은 현재 수감중인 분들과 각각 다른 장소에서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50대 남자는 활발하게 몸놀림을 하지 못해서인지 약간 희뿌연해진 얼굴 외에는 근심 걱정의 빛 한 줄기 없이 침착하고 조용한 태도로 나와 대화했다. 그가 앞으로 더 살아야하는 죄명은 「살인 및 XX」였다. 그리고 30대 여인은 아모레나 주리아 등의 화장품으로 변장시키지 않은 본연의 용모였으나 나름대로의 미를 풍기는 단정한 태도였다. 그 여인의 죄명은 「살인미수」. 아무튼 이 두사람뿐 아니라 내가 만났던 이들 대부분의 모습은 조바심이나 초조, 근심 걱정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평온 그대로의 것이었다. 물론 그들 중에 「형기」라는 뇌리에 이미 박혀진 고정관념 때문에 체념의 생활을 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으리라. 하지만 더 많은 이들이 보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을 나는 분명히 본 것이다.

강압이 일체 배제된 미사시간에 마치 주일학교 어린이들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험차게 생각을 부른다든지, 교리시간에 해맑은 눈들을 크게 뜨고 교리를 듣는 모습들, 특히 일전에 전통성당에서 오랫동안 봉직하면서 재소자 교리를 맡아오다가 접근발령 받은 장수녀님의 이별소식을 듣고 눈물 흘리던 단순한 그들의 몸과 마음은 분명히 체념된 생활에서는 비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다.

나는 “性相近也나 習相遠也니라”(論語 陽貨篇2)하는 공자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선하신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은 누구나 본시 착하다. 그러나 세상의 악습과 좋지 못한 풍속은 인간을 오염시킨다. 이 시간 길거리의 아무인들 붙잡고 “당신만은 그래도 착한 본성 그대로의 생활을 하고 있으시겠지요?” 하고 묻는다면 과연 주저없이 그렇다고 답변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똑같은 죄인인 우리는 오늘도 제조사들 뿐만 아니라 출장자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라는 “참” 자체를 알고난 후 차라리 오염되지 않은 교도소내에서 修身하고 평온을 누리던 그들이 출소하지 얼마 아니되어 또다시 공인된 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은 누구의 탓일까? 오염된 채 오염된지 모르고 사는 죄인들인 우리를 합리화 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제법을 강요하는 풍 문은 개들이 아닌가 반성하고 싶을 뿐이다. 주체님은 이야기글 한것 같아 얼굴이 달아오른다.

요심이 (239) 김병호



주방 근무자 모집

1. 근무처...가톨릭 여학생관
2. 제출서류...①자필 이력서
②본당 신부 추천서
3. 자격...30~40세의 여성
으로 미혼·기혼 제한없음
4. 면접...28일 오전 10시부터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타·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 원아모집 □

성 체 유 치 원

자 격: 만 5세-6세 어린이
기 간: 2월 1일-2월 28일
주 소: 중노송동 성체수녀원 내
전 화: ② 8408, ③ 3231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 약국

—조계약 전문

김 을 태(베드로)

*육교열 중앙 시장동
(전화 ③ 4577, 5789)

난 방 시 설 은

한국 온수 온돌

이리 구시장 ☎ 8629

전주 최정식 ☎ ②8342

군산 청파시장 ☎ 3032

결 (축) 혼

김영식 씨 큰아들 학주(요셉)군
한창수 씨 둘째딸 영희(세시리아)양
일시: 78년 2월 26일(일) 오후 2시
장소: 서울 잠실 천주교회
주례: 나 궁 렬 신부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열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환영회(칠비아)양, 순정이 편집실 근무,

1. 사순절입니다. 뜻깊게 보냅니다.
 2. 공소회장 연수회(3월 2일-4일, 가톨릭 센터) 참가신청을 이달 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 J.O.C 연수회(3월 5일-6일)
 4. 혼인문제 상담일(3월 6일 10시-오후 4시, 교구청 응접실)
 5. 성빈첸시오 아 빠울로 전북지구 이사회 산하 협의회(남원, 수류, 신태인)은 각 협의회 보고서를 빠른 시일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6. 제 3지구 학생 정기총회(오늘 오후 2시, 창인동 천주교회)
 7. 제 3지구 교리교사 연합회의(오늘 오후 2시, 주현동 천주교회)
 8. 제 4지구 학생총회(3월 1일 오후 3시, 서학동 성당) 정기총회 및 지구장 선출, 각 본당 친구 회장단
- 교구 연합 판매 안내(값 500원)
「교구 공동체의 발전을 다짐」하는 교구 연합을 교구청에서 판매중입니다.
수룩내용...각 본당, 기관, 교구단위 단체 소개...구역장 명단까지 수록되어 있음.

(중앙)

전화 ③3651 ③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임영복
사도 회장 이복배

1. 월례회 사도회 : 26일 공식미사 후, 강당 어머니 합창단 : 2일<목> 10시 반 성심 부녀회 : 3일<금> 어머니 미사 후
 2. 학생회 정기총회 : 26일 오후 2시, 강당
 3. 사순절 특별 강연회(2차) : 3월 1일<수> 저녁미사 후
 4. 가정방문 : 교사동-28일~3월 1일, 경원동-3월 2~3일
 5. 교무금은 월별로 납부 바랍니다
 6. 새로 소임을 맡아오신 세분 수녀님을 환영합니다
수녀원·유치원 전화번호는 ⑤ 6669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27, 385원

4. 반회장 회의 : 27일<월> 밤 8시
 5. 주일학교 일일교장, 문안드레아씨
 6. 예비신자 환영식 : 3월 5일 공식미사
 7. 중고생 교리 : 매주일 공식미사 후, 강부제님 지도
 8. 모든 신자들! 신용조합에 가입하여 서로 도움시다
 9. 성가연습 : 매주일 공식미사 전(공동체 성가집)
 10. 봉헌금은 각자 봉투에 넣어 정성껏 봉헌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44, 040원

(노송동)

전화 ⑤ 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김성록

1. 재속 형제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사도회 월례회 : 오늘 저녁미사 후
 3. J.O.C 일반회 : 오늘 13시 반, 명상의 집, 젊은이들의 많은 참석 바람
 4. 사순절의 피정 : 3월 13일<월>-17일, 강사-범석규 신부님
 5. 오늘은 교무금 납부일, 분납제 원칙을 지켜시다
 6. 축! 청년 성가대(세라핀) 탄생!
아직 가입 못하신분 연락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59, 93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훈

1. 애령회 월례회 : 10시미사 후
2. 반상회 및 가정방문 : 8반-27일, 7반-28일, 6반-3월 2일
3. 축! 본당신부님 영명축일(3월 4일)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4. 공소 판공 : 3월 14일 오후-마음리, 15일 오전-석구리, 17일-광곡리
5. 꿀꿀꿀, 배고픈 돼지 돌보시다

(숲정이)

전화 ⑤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1. 요한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신용조합원 교육 : 오늘 공식미사 후 강사 지구협의회 박종목 선생님 조빙
 3. 사도회 : 다음 주
 4. 거년도에 약속한 봉헌금 정리 바랍니다
 5. 중고등<토> 학생미사에 중고생들 꼭 참석합시다
 6. 돼지를 살찌게 먹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 88, 13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유제상

1. 미사전에 교무금과 주일금 봉투찾아 봉헌합니다
 2. 집 주소 변경되신분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3. 주일학교 졸업식 : 오늘 오후 2시
 4. 학생회 임원회의 : 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62, 726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이순환
사도 회장 유유석

- ※ 3월은 성요셉 성월입니다
1. 글라라 형제회 : 오늘 오후 1시 반
 2. 사순절 산상미사 : <토> 오후 4시, 치명자산
 3. 성당의자 개조, 5인석(일조 2만원 예정)
 4. 축 환영! 김릿다·맹마리아 수녀님
 5. 주일학교 개강 : 3월 5일(첫 주일)
 6. 중고생 셀, 레지오 마리에에 가입합시다
 7. 애령회 : 오늘 저녁미사 후(8시)
- ※ 새 성당 축성예절 : 4월 14일
- 지난주 봉헌금 : 133, 26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로

1. 복자 부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속죄의 뜻으로 성미운동에 참가합니다
3.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